

스미에르츠 연가 초라

The Women with Headless Bodies and a Hundred Heads

2013

0.¹

파리목숨의 단말마를 교대근무 보초라도 돌며 서듯, 꺾바퀴가를 차례로 맴도는 날파리 떼를 머리에 이고서, 이국의 먼지 섞인 햇별을 숨턱으로 간신히 걷어내며, 비탈을 오른다. 뜨겁다. 땀이 표피로 스며나오는 즉시 곰팡이같은 소금꽃을 피우고 증발한다. 심장이 우렁차고 뜨겁다. 허벅이는 숨을 들이쉬고 내뿜을 때마다 미세한 날파리들의 바다가 호흡기에 조수간만처럼 들락거린다.

날파리들이 좁쌀만도 못한 몸체에 싸락눈처럼 날리는 작은 날개들을 맹렬히 쏘아대는 무성한 소리가 음절되고 날말되고 주렁주렁 연발되면서 불협화음의 단단한 덩어리가 저서, 그것을 꺾청껏 덕지덕지 발라대며 걷어내며 걸어오르고 있노라니, 그 망혹하는

진동의 쇠덩이 속에서 “뇌성!” “봄우뢰!” 따위 환청들이 그 동굴을 찾아 오르는 나를 자꾸 쫓아오고 있었다.

그 딱한 마을 사람들의 야유와 돌세례와 욕지기를 멸찍이 등지고서, 날파리떼의 쾅음을 젖은 솜이불처럼 온몸에 끼얹고서, 로드라는 소녀와 함께 서로를 부축하고 터벅이며 오르는 산기슭의 황량한 황톳빛 안개의 안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는 스미에르츠를 생각했다. 스미에르츠의 목소리를 들었던 첫 순간부터 그랬듯 나는 언제나 스미에르츠만을 생각했다. 그녀에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뻗속 깊숙히 느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여정의 끝이 이윽고 다가오고 있었다.

1 3



2.

스미에르츠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렇게 치자면 우연 아닌 일이 세상에 몇 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굳이 우연이라고 부르기를 고집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낯간지러워서이다. 낯간지러운 언어들은 낯설지 않고, 낯이 간지러워지는 순간부터 그저 낯설어지고, 나의 이 모든 언어들은,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언어들은 나에게 낯설다. 적합하지 않은 까닭에서이다. 적합한 것이란 이미 없다. 적합하지 않기에 낯선 것은 뭐든지 시시하다. 낯설지 않은 적합한 것은 애당초 없으므로, 결과는 뭐든지 도무지 의미가 없다. 스미에르츠의 언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지금 이 말은 당최 무슨 말일까? 세상에 낯설지 않은 언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주어와 술어를 평생토록 쥐락펴락하며 오늘도 수만-수천-수백-수십-수회째 끼워맞추는 아주 노련한 문장가에게도, 모든 문장은 매일 갓 구운 빵처럼 새로운 신선한 우연일 뿐이다. 모든 우연은, 필연이 아니라는 아주 지리멸렬한 공통분모를 지닌다. 심지어 중력조차 필연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양자물리학자들은 그 우연의 숭고함을 담아내기 위해 숫자의 언어로 그릇을 빚었고, 달밤에 냉수 한 그릇 떠놓듯 간절한 마음으로 연역적인 귀납성이거나 귀납적인 연역성 따위의 성전에도 매일같이 절망의 핏고물을 떠다 바치며 연구비를 타냈다. 법칙조차 필연일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절망으로 무기개발자들은 존재의 가장 미세한 근간을 쪼개어서라도 돈을 벌었고, 하루가 멀다하고 살육을 서슴지 않았다. 같은 절망으로 심리학자들은 두개골을 가르고 두뇌의 발고랑을 탐독하며 물렁물렁한 육질의 심연으로부터 두뇌피질의 자기지라든가 동물의 자기애적 인지능력이라든가 생물의 소통체계 따위를 끄집어냈다. 마술사가 지팡이에서 오색찬란한 손수건을 국수가락처럼 쭈욱쭈욱

뽑아내듯이, 그 모든 것은 결코 낯설지 않은 필연이었다. 그런데 사실 더욱 엄밀히 말하자면, 스미에르츠의 언어를 처음 접한 것은 우연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여러 총체적인 질서들 속에서 발생한 여러 일들의 당연한 결과였다.



그토록 잦던 열쇠가
파랗게 변색된 흰쌀밥환(환)에
양전히 꽂혀 있는 것이었다.

스미에르츠를 접한 날, - 엄연히 말하자면 나는 스미에르츠를 접하기 이전의 기억이 정말이지 잘 떠오르지 않지만 - 억지로 떠올리자면, 어렵פות 기억으로는, 그날따라 나는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는 것이 많이 불안해진 시점이었다. 전화기를 냉장고에 두고 나오고, 지갑을 옆집 우체통에 쑤셔넣었다가 발견한 것은 십분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었다. 세제인 줄 착각하고서 설탕으로 빨래를 했고, 설탕과 방향제를 구분하는 법을 잊어서 방향제를 커피에 뿌려먹을 뻔했다. 거기까지는 조금 아슬아슬했다. 그런데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까지 까먹은 것은 너무 비참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좁아터진 방에서 칩거하다가 한참 뒤에 배고파서 보온밥솥을 열어보았는데, 모락모락 김이 설새없이 서렸다 지는 - 마치 격분한 생물처럼 씨근덕대는 듯 보이는 - 열쇠가, 그토록 찾던 열쇠가, 파랗게 변색된 흰쌀밥 한가운데에 얇전히 꽃혀 있는 것이었다. 희한한 일이었다, 그 열쇠를 보는 순간, 그간 억눌렀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끼쳐와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간 상담사에게 불안한 마음을 여과없이 게워냈다. 상담사는 전문적으로 가꾸어진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억지스럽지 않게끔 적당히 가공된 웃음을 웃으며 당연히 하는 말들을 당연한 대본처럼 읊었다. 미아 씨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기억이 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합의서도 써서, 수술까지 했잖아요?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제는 무를 수가 없어요. 벌써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고 약 꼭 챙겨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좀 나아지셨나요?

너무 뻘해서 어이가 없었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낮간지러울 정도로 시시켰다. 터무니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낮설지도 않았고, 지겹도록 적합했는데, 무언에 적합한지가 또한 너무나 뻘해서 지겹도록 낮간지러워지면서 모든 의미가 망실되는....., 뭐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나아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왔다. 실은, 그 길로 곧장 한강 다리로 가서 뛰어내릴 마음을 굳힌 뒤였다.

소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명칭은 정말이지 너무나 시시껄렁하다. ‘스트레스’는 자판기가 동전을 다 먹고서 바로 에러났을 때에나 쓰는 단어다. ‘외상’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한달간 팔다리에 깁스를 할 때나 쓰는 단어다. 그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그런 상태를 일컫는 것은, 이를테면 ‘원자폭탄’을 ‘성냥’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인지부조화다. 아둔한 오류다. 인류의 모든 단어가 그렇다. 어느 우매한 시초인류나 유인원이 언어에다가 의미를 쑤셔박기 시작한 그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발본적인 범-종족적 오류다. 존재의 본질을 우회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본디 그렇다. 인류라는 무리는, 즉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미 역사라는 것은, 원자폭탄의 이전으로 시계의 초침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 분초 단위로 쪼개어 날개로 되돌리기에는 이미 몸덩이들이 너무 비대해져버린 까닭이다.

한강다리 부근까지 걸어서 도착했을 때에는 밤이었다. 그런데 마침 내가 걸어가려던 길이 공사중이었다. 그 다리는 공사를 자주 하는 다리였다. 모래포대와 건설자재들이 가지런하게 쌓여 있었고 녹슨 빛깔의 철근들이 거대한 화석처럼 지형지물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틈을 헤메다가 나는 어느 인적 드문 강둑의 어둠 속에 지쳐 주저앉았다. 걸터앉은 물가를 수놓은 밤도시의 싸늘한 점묘화는 물비린내만 자욱했다. 넓게 뻗은 강의 먼 저편 기슭에는 폭파된 밤섬의 잔해가 까마득한 천혜를 되찾은 채 어둠의 고요를 아름답게 드리우고 있었다. 40초에 한명꼴로 지구의 구석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정리한다. 1년에 80만명이 자살로 사망한다는 싸늘한 통계. 내가 뭐라고 그들과 다른가.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한 세대어치의 인간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알아서 비벼서 꺼버린다. 마치 자기 삶이 어딘가에 잘못 옮겨붙은 성냥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세상 따위에 영혼 따위를 지닌 채로 온 것은 잘못 옮겨붙은 게 맞다. 그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영혼도 영혼대로, 세상도 세상대로 다 나름의 이치로 따지자면 꺾이나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공연히 아름답지 않은 것들만이 아름답다고 회자되기 때문이다. 돈이랑, 결보기식의 훌쩍 감상주의랑, 번드레한 공허 말고는 세상에는 그 무엇도 없다는듯이, 모두들 무의미한 연극에만 혈안이 되어서 서로의 등을 찌르고, 돈과 숫자로 살갓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이다. 마르료슈까 인형처럼 비어

있는 것들 속의 비어 있는 것들 속의 비어 있는 것들은, 그 술한
변주들의 변주들의 변주를 대단한 것마냥 추켜세우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눈을 가진 이들의 안구를 후벼파기에 바쁘다. 어릴
때에나, 요행히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부모에게나 태어난 아주 소수의
몇몇 아가들에게나, 반짝 섬광을 비쳤다가 꺼져버리는, 진실이라거나
현실이라거나 아름다움이라거나 희망 따위의 거짓말들, 전인류적
반인류적 사기극들뿐이다.....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참기가
힘들었다. 생각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괴성을 질러대면서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허공에다가 발길질을 하는데, 돌부리 같은 것에
탁 걸려서 넘어졌다. 자칫하면 굴러서 물 속으로 빠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순간, 기름진 물비린내와 어둠의 장력이 두려워졌다.

이대로 맥없이 물에 굴러떨어지기는 또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사로 길도 다 막혔고, 걸어올라갈 기력도 이제는
남아 있지가 않고, 오늘밤 충동이 가시기 전에 뛰어들기는 이미
글렀는데. 역시나 죽기는 아직인가. 아까 왜 안 뛰었을까를 후회할
정도로 얼마 안 가면 다시 고통스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살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단은 살아보겠다는 선택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선택을 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를 것이다,
살아야겠다는 선택에 뒤따르는, 살아야 한다는 책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스스로 조금 맥이 풀리고 얼떨떨했다. 벌벌
떨면서 옷자란 풀섶을 헤치며 황급히 일어나려고 손을 짚었는데,
돌부리라고 생각했던 그 물체가 손에 잡혔다. 눈을 한껏 찌푸려도
초점이 잡히지 않을 정도의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응달진 내 손
밑의 물체를 더듬었다. 고철덩어리? 플라스틱? - 들어올려 보니
무겁지는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쯤은 그 물체에 의지하듯이, 두 걸음에
한 번 꼴로 주저앉았다가 겨우 일어서듯 부축을 받아가듯이,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간신히 기어들어왔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그것을 베게삼아 오래도록 꿈

없는 잠을 잤다. 깨어서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 물체는 흙투성이의
낡은 크림색 상자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축축하고 너털너털한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었다. 뜯기고 해져서 읽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갈변한 스티커 라벨지에는 흐린 연필로 알 수 없는
외국어로 'смерть - роды'라고 적혀 있었다.



3.²

곰곰히 기억을 더듬어보니, 테이프를 발견한 이후로부터 스미에르츠의 목소리를 듣기까지는 일주일일이 더 걸렸구나. 기억은 곰곰히 되짚을수록 선명해지지만, 조금씩 각색이 되기도 하지만, 여하간 곰곰히 되짚을수록 선명해진다. 여하간 고민이 되었다고 기억한다. MP3도 지원이 요새는 잘 안되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려면 어디서 어떤 기계를 구해야 하나? 누군가에게는 물어봐야 하는데, 나에게는 친구도 지인도 가족도 없고, 아-있었던가? 있었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상담사에게든 담당형사에게든 내가 승인을 받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물체를 어디에서 구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그러면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짓말이 들통날 테고, 그러다가는 또 괜한 오해를 또 사면 또 영영 안될 노릇이다. - 그런데 왜 내가 그런 놈들에게 승인을 받아내는 척을 해야 하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에게는 왜 가족도 식구도 친구도 없을까? -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이런 식이었다.

한참을 머릿속으로 뱅글뱅글 이렇게 챗바퀴를 굴리다가, 잊었던 것을 죄다 기억을 해내고 말았다.

그 상태로 며칠을 발작하다가 소위 회복이 되어버린 모양인데, 눈을 뜨니 병동이었고 나는 소위 말하는 멀쩡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상담사는 수술 이후에도 이렇게 말끔히 회복하더니 놀랍다며 나의 우수한 회복력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나의 회복력이라든지 나의 어떤 속성보다는, 상담사 자신의 사례연구의 특수성이라든지 상담기법이나 신종 특수치료기법 따위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컸던 것 같지만.

2 1(not?)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시시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해가 하나 생겼던 것을 말끔히 해결했고, 내가 처했던 문제와 기억을 상실하게 된 이유마저도 말끔히 해결했다.

시시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진실이므로.

그리고 나는 소위 평범한 사회인이 되어서 이제는 취업을 해야 하니까,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하기 위해 토플 시험을 응시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기억해낸 지인에게 빌렸던 아주 오래된 토플교재의 테이프를 듣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해서 중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하나 주문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일주일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9.³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을 때 나는 지하철에 앉아 있었다. 2호선 순환선의 가장 낡은 차량이었다. 모스 부호처럼 차량내 전등이 깜박여서 운행 중 안내방송이 자꾸 나왔는데 지하철 굉음에 가려서 잘 들리지 않았다. 집에서 황급히 가지고 나온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다른 승객들은

3 카발라 신학에서의 페샤트/ 레메즈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카발라(히브리어: קבלה) 카발라, Kabbala)는 유대교 신비주의의 사상을 말한다. 히브리어 '키벨'에서 온 말로, '전래된 지혜와 믿음을 가리킨다. 세계의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신비주의 전통과 일맥상통한다. 카발라는 신비주의의 양식을 그대로 좇고 여타 신비주의처럼 특정한 카발라 교의(敎義)의 독선주의도 배제된다. 많은 유대인은 카발라를 토라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토라에 내재된 깊은 의미를 연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토라의 연구는 전통으로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나뉜다.

페샤트(Peshat): 겉으로 나타난 뜻
레메즈(Remez): 비유하거나 은유성을 띤 뜻
데라쉬(Derash): 랍비나 미드라슈답게 재해석
소드(Sod): 토라에 내재한 비밀을 신비스럽게 해석

토라에 내재한 비밀 연구[소드]를 카발라라고 한다

잘 익은 별짚마냥 스마트폰 위로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가, 카세트 플레이어의 조작하는 나를 한번씩 힐끔거렸다. 시시한 시선들을 느끼면서 나는 익숙한 어학교재의 발랄한 테마송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스미에르츠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던 것이다.

아, 테이프 잘못 넣었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 그녀의 이름이 스미에르츠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알 수 없다. 마치, 동굴에 갇혀서 벽의 그림자만 보다가, 그 동굴과 그 그림자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다가, 마침내 비로소 바깥 세상을 처음으로 구경한 기분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화가 났고, 눈이 부셨고, 귀가 먹먹했다. 그리고 화가 났다.

스미에르츠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단단했고 살짝 그늘져 있었다. 무슨 언어인지, 어떤 단어들인지는 알 길이 없었으나, 발음은 또박또박하면서도 마치 미끄러지는 비눗방울이나 계피가루를 탄 꿀물처럼 저항감 없이 순리대로, 음압만의 중력이 지닌 섭리를 따라 흘러갔다. 약간은 늘어진 낡은 테이프의 돌돌거리는 소리가 스미에르츠의 목소리의 파장을 군데군데 더욱 감미롭고 어딘지 납작하면서도 더욱 넓다랗게 펼쳐줄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스미에르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낱알이 뜻풀이해주고 있었다.

그것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무 역에서나 내려서 벤치에 앉아 별별 떨며 앉아 귀를 기울였다.

차라리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더라면, 내가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덜 억울했을지도 모르겠고, 그랬다면 어딘지 화가 조금이라도 덜 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 어디 이해할 뿐이었겠는가! 나는 전율했다. 나는 공명했다. 이제껏 마주한 적 없는 - 아름다움이, 진실만이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나의 것이기도 했다. 나만의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나의 것이면서도, 결단코 나만의 것일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마주하였을 때에만 오롯이 완벽히 내몰릴 수 있는, 아주 특수하고 절대적이고 환원불가하고 황홀한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거대한 압축기에 빨려들어가듯, 그 무력감에 나는 짓눌리고 간헐했다. 이윽고 이어진 수축과 이완의 힘은 마치 갓 태어나는 아기의 머리를 누르는 모체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수축과 이완의 통증이 곧이어 고스란히 나의 자궁에서도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의 세상을 한올 한올 박음질해주는듯한 그 목소리가 해독할 수 없는 억양으로 조곤조곤 자신만의 해설을 이어갈수록 나는 귀를 기울였고, 나는 귀를 기울였고, 갑자기 앉은 자리가 뜨거워져서 내려다보니, 피떡져버린 양수가 터지듯이, 내가 입고 앉은 여름 치마의 얇은 천에 붉은 생리혈이 무서운 속도로 배어나오고 있었다.



729.

그 무렵 미아의 일기장으로 추정되는 문서

오늘의 일기. 맑지 않음, 미세먼지 경보가 울려서 잠에서 깼다. 하루종일 스미에르츠의 테이프만 들었다. 며칠째인지 모르겠다. 테이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진다. 너무 늘어지면 결국에는 못 듣게 될까봐 무섭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지혜가 이런 이상하게 생긴 언어들을 잘 아니까 아까 독서실에서 쉬다가 잠깐 물어봤었는데, 라벨지에 적힌 단어들은 ‘죽음이 곧 탄생,’ 대충 그런 뜻이라고 했다. 그럼 혹시 스미에르츠라는 단어는 아냐고 그건 뭐냐고 물어봤는데 개가 나한테 너 러시아어 언제부터 공부했냐고 되물었다, 스미에르츠가 러시아 말인데 그 라벨지에 있었던 ‘죽음,’ 그 단어라고. смерть - роды, ‘스미에르츠-로드’라고 한다. 근데 그거 말고도 뜻이 많다고 그런다. 스미에르츠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나도 모르게 드는데 그럴수록 화가 난다. 화가 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답답해서 더 화나고 화날수록 답답하고 악순환이다.

스미에르츠의 언어가 뭔지, 이거 이해하고 싶다. 지혜한테 아까 진짜 살짝 들려줬는데 러시아어는 아니라는데, 그럼 동유럽 언어인가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다고 하더라. 아랍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혜가 조금 더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못 들려주겠더라. 너무 많이 들려주기가 무섭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스미에르츠를 들려주기가 무섭다. 왜냐면 스미에르츠의 말들을 나랑은 다르게 이해할 거 같아서 그런 거 같다.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는 오해한다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나는 스미에르츠의 말들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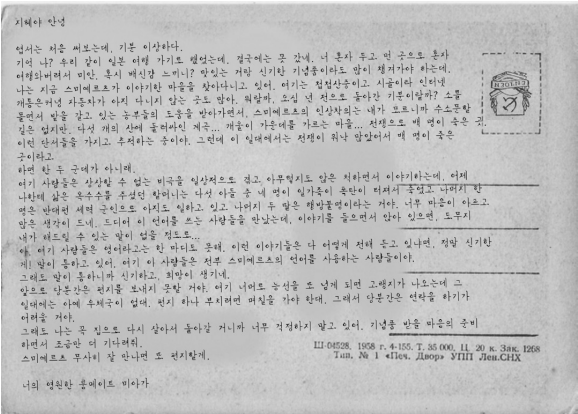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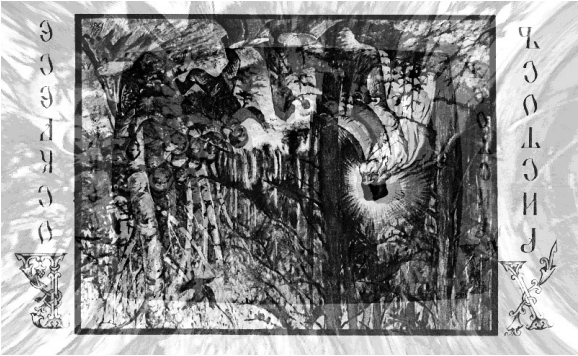
그런데, 내가 스미에르츠의 말들을 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건 진짜 너무 분명한데, 이상한 것이 있다. 같은 부분을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뜻이 조금씩 바뀐다. 분명히 테이프는 똑같이 돌아가는데,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조금씩 달라지는 게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테이프가 늘어져서 다르게 들리는 건가 했는데, 그럴 리는 없는 거 같고... 테이프를 듣는 게 아니라, 꼭 살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오늘은 스미에르츠가 자기 나라의 언어의 역사랑, 자기 마을의 지형이랑, 무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여동생 이야기도 했는데 여동생이 포로로 잡혀서 어디에 갇혀 있다고 했다. 산봉우리 다섯 개에 둘러싸인 작은 계곡 속에 개울이 가운데를 가르는 마을이 스미에르츠의 고향인데,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100명 넘게 죽었는데, 스미에르츠의 친척들이랑 오빠랑 부모님이 다 죽었다는데, 스미에르츠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근데 그게 제일 슬프다고 그런다. 게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흙에서 피 썩는 냄새가 나서 밭을 못 간다고 한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먹고 살 길이 없고 토질이 나빠져서 큰일이라고 한다. 마을에 있기가 무섭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산 속에 숨어들어갔다가 나무껍질을 너무 뜯어 먹어서 나무들도 죽고 있다고. 그리고 스미에르츠가 자꾸 자책을 하던데, 이유를 모르겠다. 다 자기 잘못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너무 슬프다. 스미에르츠가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의 일기, 팔지 않을, 미세먼지 정보가 물려서 상에서 뺐다. 하루종일 스미에르프의 테이프를 들었다. 며칠째인지 모르겠다. 테이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진다. 너무 들어지면 결국에는 못 듣게 될까봐 무섭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지폐가 이런 이상하게 생긴 언어들을 알 아니라 아마 독서실에서 위다가 잠깐 물어왔는데, 라벨지에 적힌 단어들은 '죽음이 곧 탄생.' 대충 그런 뜻이라고 했다. 그땐 혹시 스미에르프라는 단어를 아냐고 그런 뉘나고 물어왔는데 걔가 나한테 너 러시아어 언제부터 공부했냐고 되물었다. 스미에르프가 러시아 말인데 그 라벨지에 있었던 '죽음.' 그 단어라고. смерть - роды , '스미에르프-로드'라고 한다. 근데 그게 말고도 뜻이 많다고 그런다. 스미에르프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예시당으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주 나오 모르겠는데 그걸수록 화가 난다. 화가 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답답해서 더 화나고 화남수록 답답하고 아순환이다.
			스미에르프의 언어가 뭔지, 이게 이해하고 싶다. 지폐한테 아마 진짜 살짝 물어왔는데 러시아어는 아니라는데, 그럼 통용된 언어인가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다고 하더라. 아참이 장기도 하고, 그런데 지폐가 조금 더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못 들어주겠더라. 너무 많이 들어주기가 무섭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스미에르프를 들어주기가 무섭다. 왜냐면 스미에르프의 말들을 나랑은 다르게 이해할 거 같아서 그런 거 같다. 다르게 이해한다는 건는 오해한다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나는 스미에르프의 말들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해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스미에르프의 말들을 다 음파로써 이해하고 있는 건 진짜 너무 분명한데, 미정한 것이 있다. 같은 부문을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뜻이 조금씩 바뀐다. 분명히 테이프는 똑같이 돌아가는데, 왜냐면 '알'도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조금씩 달라지는 게 이유가 될까? 처음에는 테이프가 들어져서 다르게 들리는 건가. 됐는데, 그럴 때는 읽는 거 같고... 테이프를 듣는 게 아니라, 꼭 살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오늘은 스미에르프가 자기 나라의 언어의 역사학, 자기 마을의 지형이랑, 무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역동성 이야기도 했는데 역동성이 프로로 잡혀서 어디에 잡혀 있다고 했다. 산골짜기 다진 개체 출현까지 작은 개체 개체의 개체들을 가로는 마을이 스미에르프의 오랑안데, 카가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100명 정도 죽었는데, 스미에르프의 인종학이란 오랑안 포도님이 다 죽었다는데, 스미에르프는 그걸 외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근데 그게 제일 슬프다고 그런다. 게다가 농산물 지출 수가 없다고, 흙에서 피 먹는 냄새가 나서 밭을 못 간다고 한다. 농산물을 신지 못하면 먹고 살 길이 없고 토질이 나빠져서 큰일이라고 한다. 마을에 인기가 무섭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산 속에서 숨어들었다가 나무껍질을 너무 흉어 먹어서 나무껍질도 죽고 있다고,, 그리고 스미에르프가 자주 자제를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다. 다 자기 잘못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너무 슬프다. 스미에르프가 자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43.

미아가 지혜에게 보내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엽서



스미에르츠의 목소리만을 의지하며, 스미에르츠의 마을과 스미에르츠를 찾기 위해, 내가 객지를 유랑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스미에르츠의 목소리를 들으며, 익숙한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아직까지 가본 적 없는 골목들로, 더욱 좁고 어두운 골목들로 빨려들어가는, 흡사 빛의 삼투압 것을 느끼곤 했다. 골목 지나 다른 골목의 어귀가 보이면, 그 먼 골목의 끝에 도사리는 차가운 가로등빛의 원뿔 주위에서 두런거리는 어둠은, 담벼락의 잡초 풀섶들과, 구겨진 담배 궤초들과,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 봉투들과, 그림자처럼 오가는 길고양이들과, 녹록한 박스를 덮고 자신만의 꿈을 꾸며 코를 고는 길거리의 사람들과, 빨갭게 x자 칠이 된 재건축 대상의 공간들을, 더욱 선명하게 - 비추지 않음으로서 외려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늘어져가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걷고 있노라면 눈이 닿는 모든 것이 곁잡을 수 없이 아름다웠고 참혹했고 분명했다. 스미에르츠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해설해 주었다.

그러다가 점차 더 멀고, 점차 더 멀리 떨어진 골목들로, 붙들리듯, 빨려들어가듯, 끌려가듯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스미에르츠와의 산책은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갈수록 길어졌고, 한 시간이 열 시간이 되었고, 열 시간이 일 년이 되었고, 일 년이 십 년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스미에르츠의, 갈수록 느려지고 늘어지고 가늘어지는 목소리에 의존하며 걷다가, 마침내 먼 이국의 고향에 도착했다.

스미에르츠의 땅에 도착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순간을 기억한다. 나는 지명 없는 농촌을 가르며 구불구불한 흙길을 걸으며 어떤 논밭을 지나고 있었다.

갈비뼈가 거죽 밑으로 투명히 보일 지경으로 배짱 마른 늙은 소를 물면서 썰레질을 하던 할머니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작업을 멈추고 소를 어르면서 나를 향해 환영인사를 건넸다.

-워어! 워어어. 거기 이방인! 자네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이 동네에는 처음 오지? 동양인인가?

누더기 장갑을 벗어 잠시 땀을 닦으며 서 있는 늙은 농부의 얼굴은 자글자글한 광대뼈와 코끝만이 검붉게 익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한쪽 귀로 스미에르츠를 들으며 걷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마저 빼고 잠시 테이프의 일시정지 버튼을 딸깍 딸깍 딸깍 세 번 눌렀다.

-네, 안녕하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나의 입에서 스미에르츠의 말이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너살 좋게, 소녀처럼 웃었다.

-이방인이 우리말도 잘하네. 먼 길 왔을 텐데 잠시 쉬었다 가게나.

-아, 그래도 될까요?

-이 날씨에 너무 걸터다니면 쓰러져. 다시 가던 길 가더라도 시원한 거 잠깐 마시고 가.

얼결에 나는 노인이 손짓하는 나무 그늘의 평상으로 가서 걸터앉았다. 들어본 적 없는 풀벌레 소리가 부스스 목청을 높였다. 노인이 웃으며 평상 밑에 두었던 플라스틱 대야를 하나 꺼냈다. 살얼음이 켜 있는 물 속에서 갈색 유리병들이 찰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니, 이 일대에는 무슨 일로 왔어?

-그냥, 아. 그러게 말이에요. 산책하다 보니, 산책이 많이 길어졌어요.

-멀리도 왔네. 여기가 어디라고..... 지도에도 아마 없을 텐데.
 -혹시, 뭇 좀 여쭙봐도 될까요?
 -그러옵. 우리는 숨기는 것 하나 없는 민족이야. 태곳적부터 우리는 서로 비밀이 없는 혈족이라우.
 -아. 혹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궁금해서요.
 노인은 잠시 놀란 듯이 나를 향해 고개를 가우뚱거리다가 의문스레 되물었다.
 -언어? 언어라니?
 그래서 노인이 놀라워하는 것이 나도 조금 놀라워서 물어보았다.
 -아까도, 이방인이 우리말을 쓰는 게 신기하다고 하셔서...
 노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그랬다가 다시 억지 호의가 만면에 번졌다.
 -아니 이 친구가 뭇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네, 응? 서로 비밀이 없으려면 기억력이 나빠야 하는데.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말이지 그걸 무얼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이 먼 길 어떻게 왔다 그래. 오느라 힘들었겠어. 애썼어.
 조금은 당황했지만, 애썼다는 한 마디에 마음이 또 조금은 어딘가 모르게 몽클해졌다. 노인은 테두리가 다 까져서 군데군데 녹아들어갔을 정도로 오래된 구깃구깃한 종이컵 두 개를 등뒤에서 주섬주섬 꺼내더니 갈색 유리병의 뚜껑을 뚫다. 펑 하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노인은 투명하고 향긋한 액체를 컵에 나눠 따르고서 아이 같은 표정으로 그걸 나에게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엄 냄새가 배어 있는 낡은 종이컵을 받아듣고서 약간 난감해하다가 입술을 적시며 마시는 시늉만 했다. 노인은 별걱별걱 네다섯 차례 음료를 들이켜고 다시 따르고 다시 들이켰다.
 그렇게 잠시 작열하는 태양빛과 시끄러운 풀벌레소리를 같이 듣고 앉아 있는데, 노인이 액체를 더 따라주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가 컵을 전 내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내 다른 손에 들린 카세트 플레이어가 노인의 시야에 들었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본 노인의 눈빛을 나도 보았다. 한여름인데도 공기가 얼어붙었다.
 -문명의 기물이구만.
 노인이 씹쓸한 말투로 뱉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서 주저하다가 그냥 내뱉었다.
 -할머니. 혹시 스미에르츠라는 사람을 아세요?
 스미에르츠라는 사람의 마을을 찾고 있는데요.
 노인이 눈을 꿈벅이다가 나를 다시 찬찬히 쳐다보았다.
 두려우면서도 담담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네, 사자(使者)인가? 아니라면, 사자(死者)인가?
 모르는 단어들이었다.
 -아닐 걸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 단어들이예요. 그런데 저는 스미에르츠라는 사람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봉우리 다섯 개에 둘러싸인, 계곡 속에서 개울이 마을을 가르는, 전쟁으로 백 명이 죽은, 그런 마을을 찾고 있어요. 스미에르츠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스미에르츠라는 사람의 마을이나, 그런 사람을 아시나요?
 노인이 한참 나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나는 모르오. 모르는데, 가만 보자, 알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저 능선을 넘어 가면 고랭지가 펼쳐지는데, 아마 자네가 찾는 게 그 너머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곳을 가려면 비품이 필요할 거야. 이방인, 혹시 고국에는 자네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가?
 생각을 조금 더듬어 보니 몇몇 얼굴들이 떠올랐다.
 -있어야 하지요.
 내 대답을 들은 할머니의 안색이 조금 슬퍼졌다.
 -그렇다면 소식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가는

편이 나올 거야. 내 증손녀가 도회지에 살다가 보름에 한번씩 와서 이 마을 편지들을 수거해서 부치곤 하는데, 마침 내일이 집에 왔다가 가는 날이거든. 자네도 고국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소식 한번 써서 보내고 남은 길을 마저 가게나. 배도 풀을텐데 옥수수 삶아놓은 거 있어. 조금이라도 먹고, 챙겨줄테니, 오늘은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우리 증손녀 방에서 자고, 그렇게 남은 여정을 다시 떠나면 어떻겠는가?



노인이 눈을 깜빡이다가
 나를 다시 관찬리 쳐다보았다.
 두견수에서도 덩달한 기색이 역력했다.
 - 자네, 사자(使者)인가?
 아니라면, 사자(死着)인가?

5.

그렇게 노인이 챙겨준 옥수수들을 먹으며 능선을 넘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나흘이 되고, 나흘이 보름이 될 줄은 몰랐다. 가방 가득 챙겨 온 건전지가 동이 났고, 스미에르츠의 목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었다.

지남석을 잃은 나침반처럼 혼란에 내몰렸다. 먹을 것이 떨어졌고, 곧이어 마실 것이 떨어져서 헛것을 보다가 하루 정도는 풀숲에 쓰러져 있었다.

기아 상태가 되면 사람의 모든 감각기능이 극대화된다. 풀날들이 날날이 수천 개의 작은 면도날처럼 피부를 찌르는 고통 속에서 땅거미가 졌다. 그제서야 낮의 시끄러웠던 벌레소리가 밤의 사색적인 벌레소리로 변주되는 속에서 줄줄 흐르는 물줄기 소리를 차츰씩 들을 수 있었다. 멀찍이서 신호를 보내듯 조잘거리는 그 소리를 향해 기어가서 비로소 삼일 만에 물을 마셨다. 물배가 찼 때까지 물을 정신없이 들이켰다.

차츰 정신이 돌아왔다.

그렇게 간신히 찾은 개울기를 떠날 수 없었다. 개울을 따라 기어가면서, 풀을 뜯어먹고 실신하다가 의식을 회복하고 다시 기어가기를 겨우 반복해가면서, 스미에르츠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쯤, 내가 입은 옷은 누더기로 해져 있었다. 가방끈은 어딘가에서 끊어져서 사라진지 오래였다. 내 손에 들린 것은 낡고 쓸모없는 카세트 플레이어와 그 안에 든 스미에르츠의 카세트 테이프 뿐이었다.

초가집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는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산봉우리의 깃수부터 세었다. 다섯. 그리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다.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개울가에서 민물고기를 낚던 소녀가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시 의식을 잃었다.

87 마, 1⁵

-이모, 이모. 이방인이 눈을 땀어요. 이모.

소녀의 목소리를 듣고 의식을 겨우 회복했다. 해가 누엿하게 창틈으로 스며들어오는 낯선 초가집이었다. 스미에르츠의 언어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내 이마를 수건으로 훔쳐주던 소녀가 다급히 이모를 불렀다. 황토벽을 한 단칸방의 귀퉁이에서 불을 지피던 아주머니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나를 향해 왔다. 흑요석 조각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눈빛은 어딘지 스미에르츠의 목소리처럼 단단하고 웅골차 보이는 구석이 있었다. 아주머니는 흡사 장마당에 내놓으려는 염소나 송아지에게 하자가 없는지 살피는듯한 날렵한 동작으로 내 눈꺼풀을 까뒤집고 색을 확인하더니 내 이마에 손을 대서 열이 떨어졌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아직 기운을 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누워 있는 스미에르츠의 카세트 테이프를 나에게 내밀더니,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다.

-이 망할 물건은 대체 어쩌다가 찾아서 이 마을로 다시 끌어들어왔는지 당장 설명하시오. 응?

옆에서 소녀가 아주머니의 팔을 당기며 말했다.

-이모, 너무 그러지 마요.

-네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다. 비켜라. 네가 몰라서 그래. 저리 비키라니까! 네가 그러고도 내 새끼야?

그리고 아주머니는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죽어가는 거 살려줬으니까 이제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 잘난 인민재판 한번 받아볼 차례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년을 또 끌어들여, 이 미친년아. 이 빨갱이야. 이 이방인아. 넌 가해자야. 넌 피해자야! 우리가 피해자야! 오냐, 우리가 가해해주마. 넌 우리 편이 아니야. 넌 미친 년이야! 이 씨부랄 년의 가시나야! 네가 그러고도 내 새끼야?

5 아인소프:(無限/끝없음/신...) 비존재, 음존재, 비근거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유

머리 없는 몸과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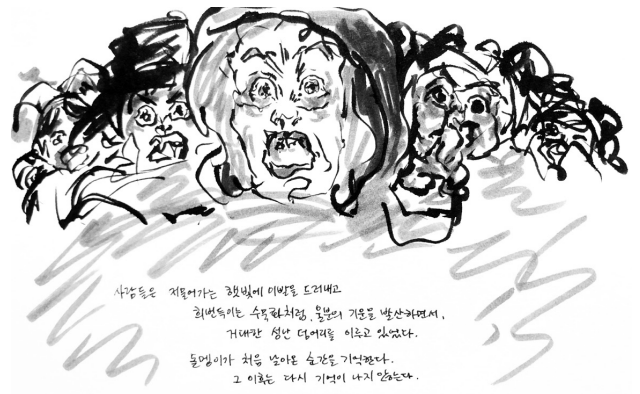
225

-이모! 이모. 진정하세요.

-저리 비켜 이것아. 너 이 개 씨부랄년아 너 이제 잘됐다 이년아. 스미에르츠! 스미에르츠! 다들 죽었어! 다들 죽었어! 너도 저승으로 가버려! 동네 사람들 이리 오소! 너 이년아, 당장 이리 와!

게거품을 물고서 알 수 없는 말들을 뒤죽박죽 내뱉던 아주머니는 소녀를 뿌리치고 내 팔을 잡아당겨서 일으켜 세웠다. 아직 발에 힘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나는 그렇게 흠바닥에 질질 끌려갔다. 화가 잔뜩 난 마을 사람들이 얇은 흙벽 너머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고, 아주머니가 나무 판자로 된 문을 뚧 열어젖혔을 때 노을은 흙먼지로 뒤덮인 마을을 도살장처럼 채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물어가는 햇빛에 이빨을 드러내고 희번득이는 수목화처럼, 울분의 기운을 발산하면서, 거대한 성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돌멩이가 처음 날아온 순간을 기억한다. 그 이후는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The Women with Headless Bodies and a Hundred Heads

227

아주 끔찍한 악몽이 지나간 것 같은데, 정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고, 나는 발가벗겨진 채로 마을 한가운데의 개울가에 버려진 채로 눈을 떴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눈부시게 휘영청했고 별뚥별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전깃불을 밝힌 것마냥 밝았다.

한쪽 눈이 부어서 떠지지 않았다. 아주 조금 움직일 때마다 아주 많이 아팠다. 피가 흐르거나 멍이 들지 않은 곳이 잘 없었다. 몸을 아주 천천히 천천히 일으켜서 개울을 향해 기어갔다. 신기하게도 생각보다 욕신거리지 않았다. 다만 팔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온몸이 하나의 거대한 상처였다. 막 다친 상처일수록, 혹은 아주 오래 전부터 흉터 있었던 곳일수록, 상처의 범위와 깊이가 크고 깊을수록, 오히려 찢린 곳을 다시 찢리더라도 덜 아픈 법이다. 통증이 고통으로 미쳐 자리잡지 못해서 그렇다. 너무 큼지막한 실타래로 다종다양한 갈래의 통증들이 엉켜서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우선은 갈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대로 아래턱과 입을 통째로 물에 담근 채로 흐르는 물을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넘겼다.

옆에서 흘쩍이는 소리가 들려서, 남은 한쪽 눈알을 굴려서 보니, 아까 나를 간호해주던 소녀였다. 소녀는 나를 보며 울고 있었다. 나는 팔꿈치를 진흙속에 비벼대며 겨우 몸을 틀었다. 소녀는 말없이 나의 상처를 개울물로 닦아주고 나에게 깨끗한 옷을 한 벌 건네주었다. 나는 아직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소녀는 쇼크상태로 굳어 있는 나의 팔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주무르며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서 나직한 소리로 혼잣말하듯이, 마치 자기 자신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듯이, 말하고 있었다.

-스미에르츠 언니. 언니가 스미에르츠 언니인 줄은 몰랐어요. 나는 로드라고 해요. 로드는 우리말로 출산이라는 뜻이지? 나를 탯줄삼아 무럭무럭 나아지면 좋겠어요. 언니가 나아질 때까지 숨어



소녀는 나를 보며 울고 있었다.

지낼 곳을 하나 마련했으니까, 해가 뜨기 전에 그리로 가자. 글썄 우리 마을 사람들 참 이상하지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았다는데,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다쳐서 그래. 아직도 남탸트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지. 그러다가는 자기 자신을 잡아먹을 뿐인데, 왜들 저럴까. 언니처럼 나도 아직 어리고 작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죽음의 뒤에는 생명이 오고 또 죽음이 오듯이, 파괴와 창조가 서로의 이면인 것쯤은 알아.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면 땅을 다져야 하는데, 오해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수도 없이 들었고, 옛 전쟁들에 대한 기억을 피부로 흡수하듯이 해두었어요. 대부분의 전쟁은 불필요하지만, 이번 전쟁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언니. 비밀인데요. 나는 사실 스미에르츠 언니의 유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 언니는 스미에르츠를 보러 왔다고 했지? 나는 스미에르츠 언니가 죽은 곳을 알고 있어요. 적군의 뼈와 우리들의 뼈가 한데 뒤엉켜 있는 곳이야. 언니는 자주 나에게 꿈에서 찾아와서 엉킨 것을 풀어달라고 하곤 해요. 너무 엉켜버려서, 다시 풀어야 한다고. 필요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유해를 수습하러 온 군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 언니가 돌아올 것을 나는 믿고 있었으니까.....

1.⁶

δραπετεύοντας από τη χώρα

날파리의 구름떼가 걷히고, 황토빛의 붉은 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즈음에는 탁하고 자욱한 먼지가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전구에 붉은 셀로판지를 두르고 스위치를 켜 것처럼 만물이
 핏빛으로 붉었다. 차츰, 산의 정상을 얼기설기 뒤덮은 큰 바위들
 사이에서 새까만 아가리를 짝 벌린 동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적색과
 흑색만으로 칠해진 명암의 수목화를 가르며, 로드라는 이름의
 소녀는 보따리를 주섬주섬 하더니, 쇠나무에다가 연탄조각 끼워둔
 것을 꺼내고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햇불이 화르륵 소리를 내며
 새빨갭게 빛났다. 근 백년간 타들어 왔던 모든 노을들의 빛을 아주
 작은 나뭇가지 꾸러미에 응축해 심은 것마냥 밝았다.

동굴로 걸어들어가는 우리 둘의 발소리가 고요하게
 메아리쳤다. 왜 이제 왔느냐는 듯, 먼지가 범벅된 백골 시신들이
 한가득, 마치 돌부리나 고목나무의 뿌리처럼 동굴의 땅속에 반쯤씩
 박혀 있었다. 따뜻한 햇불의 불빛을 이리저리 비춰가며, 머리카락과
 소지품과 씌어가는 의복들의 잔해를 들춰가며, 가해자라는 자들과
 피해자라는 자들과 군인이라는, 마을 사람들이라는, 이편과
 저편이라는 시신들의 풍화해가는 해골들 사이에서, 로드라는 이름의
 소녀와 나는 지난 전쟁의 유해들을 차츰씩 분류하기 시작했다.

6 drapetévontas apó ti chóra, 그곳으로부터 떠나기 위하여